

후용공연예술센터의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국내외 다장르 예술가들의 창작 진보를 지원하여 독창적인 창작을 가능케 하는 '과정 중심의 창작'을 지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술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게 됩니다. 2017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21세기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주제로, 다국적 다장르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세계가 융합된 공동작업을 진행했습니다. 8개국에서 온 동시대 예술가들이 저마다의 기억, 경험, 생각, 철학, 각 국의 역사 등을 나누며 동시대 이슈를 창작 작업으로 승화시킨 '21세기 민주주의' 쇼케이스를 선보입니다.

후용공연예술센터 대표
임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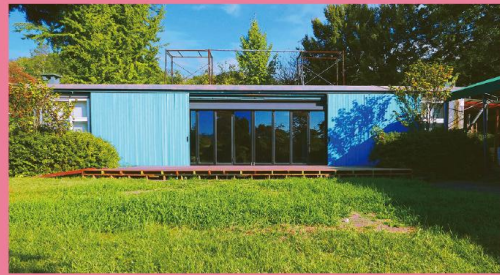
예술감독
원영오

기술감독
민경옥

음향
장우석

국내 참여예술가
이혁재, 엄주영

기획
차나영 권평이



Representative of HPAC
Lim So-young

Artistic Director
Won Young-oh

Technical Director
Min Kyoung-wook

Sound
Jang Woo-seok

Korea Artist
Lee Hyuk-jae
Um Ju-young

Producer
Cha Na-young
Kwon Pyeong-yi

Hooyong Performance Art Centre International Artist Residency (The rest is abbreviated in HPAC-IAR) is omnivorously throw artists' back behind in financing every single artist regardless of which parts they are specialized in. Plus, HPAC-IAR try to contribute as a huge factor to connect entire whole world in aiming for having creations encompassing elaborate on details of the work processes of the artists to help them create indistinguishable works. In 2017, HPAC-IAR have had a number of artists from different fields into the group works to support them to work on common denominator, '21c Democracy', which is shown a various styles of the various artists. In this works, contemporary artists from 8 countries share their own memories, idea, experiences, concepts, styles and histories to work on the issues that the world we are facing up of today's in displaying a showcase.



Without Voice



콘수엘로 메네시스 Consuelo meneses
멕시코 (MEXICO) / 배우 (Theatre)
후용공연예술센터 아티스트

무에 FRATERNITY

콘수엘로는 멕시코의 극단이자 창작공간인 TETEM의 창립멤버이자 배우로, 다양한 공연과 국제 협업 작업,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콘수엘로의 작업은 극작가 '다리오 포'와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한국과 멕시코의 민주주의가 지닌 동일한 과정과 추구점, 참여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관객들은 그녀와 함께 걷고, 소통하며, 이속고 신뢰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Without Voice'는 공연 공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공연이다. 이 텍스트는 남성들이 벤 안에서 여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멕시코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참여'는 큰 가치가 있다. 그들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국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 독백은 여성연합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어떤 종류의 남성도 허용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한다. 관객들이 행위자를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공생하게 될 것이다.

"Without voice" is a performance based in the theatre of participantes, the text speak about when a group the men get in a van to a woman, they hurt and sexually abuse her. In my country Mexico and in Korea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search of democracy has great value, they are always fighting for their rights, for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s to achieve a better world, a true humanity, this monologue is a call to women to union, to fraternity and urges not to allow abuses of any kind. The spectator will live if they so decides that: fraternity with me, walking together to achieve an end.

DEVENIR, Becoming

하이메 레마 Jaime Lema
페루 (PERU) / 배우 (Theatre)
후용공연예술센터 교실장

혁신 TRANSFORMATION

하이메 레마는 프랑스, 이집트, 미국, 유럽 등지에서 페루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연출가로 활동해왔으며, 페루에서 가장 알려진 '파트로 마블라스' 극단의 3세대 배우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페루의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과 기억,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메의 작업은, 고대신(神)과도 같은 모습으로서, 민주주의가 다름을 수용하고 스스로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인간세계, 인류. 인류가 지금껏 기록해온 것, 그리고 스스로 나아가야 할 것 변화에 대한 희망, 누군가가 되어가는 것. 보다 나은, 공정한 누군가가.

A look from the universe to the human world. What we have done and what we do with ourselves. The hope of transforming and becoming someone... Better. Someone fair.

Jaime Lema / CUATROTABLAS AIA Generation III and Komitilo Teatro



너와 나 You and me

윤기원 Yoon Gi-won
한국 (KOREA) / 시각예술 (Visual Arts)
후 미술관

다양성 시끄러운 갈등
DIVERSITY NOISINESS CONFLICT

윤기원 작가는 개성 있는 인물을 파격적인 색으로 표현해내는 독창적인 작업 스타일로, 이미 한국 미술계의 집중 조명을 받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다양한 창작세계를 지닌 다국적 예술가들의 얼굴을 한 폭의 캔버스에 공생시키며, 다름의 존중과 공존의 의미가 담긴 작업을 선보입니다.



'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고, 누가 더 타당인지 경쟁하며 비만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다양한 인물들을 한 화면에 다양한 색깔로 담아냄으로써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

Putting a diverse of different colored characters in a drawing is to express all is coexistent, which is modelled after the democracy, which is based on the ground of a miscellaneous of thinking, criticism, concepts.

신화 속의 신화 MYTH IN MYTHOLOGIES

투엔 마미 Tuan Mami
베트남 (VIETNAM)
퍼포먼스 아트 (Visual Arts, Performance Arts)
후용리 게이트볼장

THE MOMENT WHEN PARALLEL WORLDS MEET
평행세계가 만나는 순간

투엔 마미는 개념적 연구와 실험으로 작업하는 퍼포먼스 아티스트이자 비주얼 아티스트로, 레지던시 기간 동안 후용리를 누리며 지역공동체가 지닌 다양한 의미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마미의 작업은 평행선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을 예술의 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며, 우리는 그를 통해 비로소 평행세계가 만나는 순간을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후용마을에서 무료 교차카페를 운영하는 '김창영' 목사와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이다. 그는 카페를 순수 인터뷰에 했으며, 지역 공동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교적인 장소와 카페를 합쳐 지역 사회를 위한 장을 열었다는 것은, 그 경계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신선한 발상이었다. 나의 작업은 평행 세계가 만나는 순간을 제시하게 된다.

By inspiring from an encounter with Mr. Changyeon Kim, a priest from Hooyong-ri Village, who opens a free cafe bar, a minimal self-made interior place next to his church to support community to have a public space for gathering. The twist of social services, the mix of religious-holy space with relax-community one are strongly contrasted and break-through boundary idea in our modern day. The work presents a moment when parallel worlds meet.

21c 2017

Artist-in-Residency

후용공연예술센터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시

오픈 쇼케이스
OPEN SHOWCASE

2017. 9. 22 (금 Fri) PM 2
9. 23 (토 Sat) PM 4

후용공연예술센터 및 후용리 일대
Hooyong Performing Arts Centre

티켓 전석 15,000원
문의 033)732-0827

※ 쇼케이스 후,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됩니다.

21세기 민주주의의 Democracy

후용공연예술센터
Hooyong Performing Arts Centr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 레지던시는 [2017 아르크 국제레지던스 개최지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후용공연예술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Democracy +/-

메디 파라즈푸어 Mehdi FARAJPOUR
프랑스 (FRANCE)
복합장르 (Interdisciplinary Performance)
후 미술관, 후용공연예술센터 아외, 운동장

전시 <페이백>, <불타버린 아름다움에 대한 오마주> 외
공연 <1980년 광주>, <1953년 이란> 외
Installation <Pay back>, <Hommage to a burnt out beauty>, <Still,...>, <Utopia>
Performance <1980 Gwang-ju>, <1953 Iran>, <Growing fast>



아이러니 유토피아 Irony Utopia

메디 파라즈푸어는 이란 출신의 무용수이자 배우, 미디어 아티스트로, 프랑스를 기반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연부터 비디오아트, 설치예술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작업을 해왔습니다. 메디의 작업은 예술가로서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와 지향점에 대해 스스로 물음을 던지는 과정이며, 이 물음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는 무엇을 희생해야 했는가? 민주주의는 고정된 하나의 개념일 뿐인가? 혹은 추후 사회 환경과 호흡하며 변화하는 실체인가? 미래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원하고 희망하는 방향은 같 것인가? 아니면 달지 못할 이상향일 뿐인가?... (중략)
본 레지던시 작업을 통해 나에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였다. 질문에 대한 해결책과 답은 예술과 예술가가 지향해야할 지점이 아니고 생각이다. 예술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예술이 단지 위안인 아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믿기 때문이다.

I was asking myself: what Democracy brings to us? Does it offer the equality and justice to all or only to some? What has to be paid by a society to achieve it? Does the cost we are ready to pay for Democracy worth it? What Democracy used to be in the ancient time (Greece) and how it looks like in our era (nowadays)? Is there only one face for Democracy or it has an interpretable nature depending on its environment? How the Democracy will look like after us in the future? Is it going to continue its life as the way we imagine it or basically it is an utopia that is not reachable?

=At the end, what matters to me so far with my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during the residency is not trying to find a concret answer to the above mentioned questions but the most important is the questioning itself. Because I believe, Answering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Art nor the artist. The Art must keep continuously questioning. This is why I believe that Art has to be a matter of « Disturbing » not « comforting ».



비가 오고 꽃이 피고 눈이 내립니다.

It rains and blossom and snows.

(작가 윤대녕 동영 단편 소설의 제목을 인용하였음)



고통과 기억 PAIN AND MEMORY
배우 이은아는 무용가, 시각예술작가, 설치미술가 등 다국적 다장르 아티스트들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을 해왔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와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하는 기억에 대한, 밀도 있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마주한, '웨딩사진이 영정사진이 되어버린 여인'을 모티브로 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죽은 나무는 곧 그녀의 묘소이다. 그녀는 80년 5월 21일 잔인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죽음을 맞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가족과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의해 우리 곁에 있다. 마치 죽은 소나무에서 송진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그녀(죽은 그녀로 상징되는)의 고통은, 여전히 비가 오고 꽃이 피고 눈이 내리는 지금도 남겨진 우리 곁에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Eyes were casted over on the portrait. Check that, wedding photo. Check that, whatsoever. A woman in this photo in the national cemetery in memory of 5.18 made me motivate to draw. The dead tree is a drawing of her. She passed away in 21st, May of 1980 faded in the mists of the history at the very heart thereof. Still, Eyes around her desperately to remember is still rested on her. It should be bore an inscription in mind that the agonies faded away in the shadow of history like Pine tree can be remembered with resin after its being passed away.

DemonCrazy

라우라 카발호 Laura Carvalho
브라질 (BRAZIL)
시각예술, 퍼포머 (Visual Arts)
후용공연예술센터 운동장



데몬크레이지 DEMOCRACY+ CRAZY
라우라는 일상의 재료를 독특한 발상의 전환으로 재창작해내는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퍼포머입니다. 버려진 실외용 화장실을 무대로 펼쳐지는 라우라의 퍼포먼스는 브라질의 열 시대성과, 민주주의 안에 뒤섞여있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등 여러 의미들을 역설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처지 관련한 간이화장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편함, 숨 막힐 듯한, 그리고 섬뜩한 진실. 곧, 브라질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문제. 예술가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붕괴된 민주주의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여러 상징을 통해, '데몬크레이지(민주주의+데모크라시+스카레이지)'로의 변신을 제안한다. 예술가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민주주의의 변혁을 꾀한다. 그녀는 한국 전통무인 '막걸리'를 '신성한 막걸리'로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세계의 구원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성수를 떠올리게 한다.

Mirroring the discomfort, suffocation and weirdness, inherent to the chemical toilet, wi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that Brazil is now facing, the artist questions our democracy that is beared it in a neoliberalism and capitalism politics. Creating her own ritual, the artist proposes the transformation of DemonCrazy. While the artist renovates the symbolical aspect of old secreted elements, she gives a new meaning for the South Korean traditional drink, Makgeolli. In her performance, the traditional drink becomes the "Holy Makgeolli", an analogy to the water in the Christian religion, which represents the redemption of the world, life, continuity and resurrection.

최후의 일인, 최후의 순간까지

Until the Last Person and the Last moment

임소영 Lim so-young
한국 (KOREA) / 배우 (Theatre)
후용공연예술센터 운동장



톨레랑스 TOLERANCE
배우 임소영은 멕시코, 호주, 일본 등 풍부한 세계무대 경험을 지녔으며, 독창적인 장소특정형 (site-specific) 공연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배우 임소영의 공연은 '톨레랑스'라는 이념을 키워드로, 민주주의의 뒤편에 가려진 의미들을 밀도 있게 전달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다. 우리는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피 흘리는 인간을 밟고 일어서며 우리는 진보해 왔다. 물리적 폭력 보이지 않는 폭력에서 우리는 민주주의(평화)를 외치지만 누군가의 민주주의(평화)를 위해서도 다른 누군가의 피는 여전히 필요하다. 일상은 평화롭지만 한 발만 비켜서면 세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악을 입고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에 가깝다. 나의 이야기는 폭력에 의해 희생된 공간과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여자로부터 출발한다. 외적인 모습은 물리적 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습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모든 피의 근원이 그녀로부터인지 외부로부터인지...

World history is a history of violence. We are thrown over the world ruled in violence. Progresses of human beings' history have been based on the sacrifice itself. We aspire toward the democracy at the very heart of physical violence and invisible violence. It means we also need a sacrifice of the others to stand on which we want to be. Seemingly we drive our lives in peace. But looking into closer, we are in the eyes of the typhoon walked away from the spiral which all the disaster caused from. It might actually be a naïve to expect people to be tolerant in networks of wars all against all. Thus, this is no more than a paradox possible to turn a rudder into the democracy to stay away from violence. The story I drew is started from a women who end up being survived and spars from violence. It is cleared to say that appearance is a solid evidence of physical violence. As a matter of facts, it would be said 'vaguely cleared' for having no idea thereof which is a fundamental source of agonies, bloods.

자유? Freedom?

조하늘 Jo ha-neul
한국 (KOREA) / 배우 (Theatre)
후용공연예술센터 조희대

생활 속 독재,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MISSI FASCISMA,
ARE WE LITERALLY FREE?

배우 조하늘은 호주, 멕시코 등 다양한 국제 공동제작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인 다역의 연기와 악기연주, 움직임까지 소화하는 다재다능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배우 조하늘의 공연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물음을 던지며, 민주주의가 지닌 여러 의미들을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닌 심리, 언어, 정서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좋아하는 옷을 입을 권리, 원하는 취미를 가질 권리, 주어진 휴식을 취할 권리,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 수많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포기하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강요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다. 1.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선택함에 존중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을까? 2.동일한 규율과 문화, 가치관에 구성된 모두를 묶어버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3. 우리는 이 사실을 느끼고 있는가?

It should be counted psychological, linguistic emotional violence not only physical violence when it comes to violence. We are basically exposed to miscellaneous violence. We are deprived the rights in many ways. It is out of the reaches. This is what I want to covert to do with our lives in deprivations, censorships, censorship My performance is struggling with 3 main questions. 1.Are we in the society values individually and the right of choices? 2.Are we okay living in society forces us to group into the uniformed culture, rules, value 3. Are we aware of that of living in such world?

Polyphony

나오미 오타 Naomi Ota
호주, 일본 (AUSTRALIA, JAPAN)
설치미술 (Installation Arts)
후용공연예술센터 아외



독립적인 목소리의 상호작용 INTERPLAY OF MANY INDEPENDENT VOICES
나오미 오타는 부도, 컨템포러리 댄스, 다원연극, 실험예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온 설치미술가입니다. 개념적인 아이디어, 인터랙티브 디자인, 환경적인 요소들을 활용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폴리포니>는 돌, 직물, 끈, 나무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 공간의 개념을 다방면으로 확장하는 작업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와 톤을 가진 목소리들이 함께 공존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개인의 공간과 자유, 문화' 그리고 '상호작용'의 의미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폴리포니(다성음악)>는 세 개의 좁은 공간과 광활한 외부 세계로 연결된 개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공간의 설치작품은 행위자와 관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목소리와 상호작용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한다.

'Polphony' consists of three confined spaces and an open area, connected to the greater outer world. This performative installation invites performers & audience of many voices / elements to interplay.

민주주의의 봄과 눈물

Mate Air Demokrasi dan Air Mata Demokrasi Democracy Spring and the tears of democracy

아궁 구나완 Agung Gunawan
인도네시아 (INDONESIA)
안무가, 댄서 (Choreographer)
후용공연예술센터 고실극장 육상



눈 EYES
아궁 구나완은 안무가이자 댄서로, 전통과 컨템포러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창작공간이자 문화대안공간인 '삼팽아궁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궁의 작업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몸으로 이야기하며, 시와 음악, 가면, 움직임이 결합된 퍼포먼스입니다. 화려한 외면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몸을 통한 말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자, 그가 열고자 열고, 그 이름까지 잃어가는 과정.. 나눌만한 무엇이며,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민주주의의 물리에 의문을 품고 있다. 완벽한 몸, 머리, 손, 다리와 피가 있지만, 아무도 영혼을 볼 수 없다... 평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는 태어날 때 동시에 죽음으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 '민주주의의 봄과 민주주의의 눈물'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through the body. Named Mr. Democracy Being lost from the name, face and soul... What is sharing and where is the freedom... It's questioning by the democracy self Like body perfect' has head, hands, legs and blood, but nobody can see the soul... And the equality is no matter you are, we are equal. We came by birth and will leave in death. 'Democracy Spring and the tears of Democracy'